

광양 청년 참여 확대·정책 홍보 빛났다



광양시는 전년도에 주관한 '2026년 시·군 청년센터 성과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사진제공=광양시청

시, 전남 시·군 청년센터 성과평가 '장려상' 수상 인재 DB 구축...정책 정보·프로그램 정기적 제공

광양시가 청년 참여 확대와 정책 홍보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13일 광양시에 따르면 전남도가 주관한 '2026년 시·군 청년센터 성과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도내 시·군 청년센터를 대상으로 운영 실적, 청년 참여도, 정책 성과 등을 종합해 진행했다. 광양청년꿈터는 청년 참여 확대와 정책 홍보 강화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청년정책의 접근성과 참여 기반을 높인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청년의 날 행사와 연계해 현장 홍보와 정책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년 619명이 정책 수요조사에 참여하고 317명이 광양청년꿈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새롭게 구독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청년 서포터즈를 운영해 청년이 직접 정책 홍보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청년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를 제작·확산했다. 이와 함께 청년 인재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청년 255명(2025년 12월 기준)이 등록했으며, 정책정보와 프로그램

안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광양청년꿈터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참여형 이벤트를 통해 청년 의견 920건을 수렴하는 등 청년의 정책 참여 기회도 넓혔다. 온라인 홍보 기반도 꾸준히 확대해 2025년 한 해 동안 SNS 팔로워가 약 900명 증가했다. 시는 이번 수상으로 확보한 550만원을 주말·야간 프로그램 신설 등 청년 참여 확대 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청년 참여 확대와 정책 홍보, 청년센터 운영 성과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며 "앞으로도 청년이 정책의 수혜자에 머무르지 않고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기반을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ikjin@gwangnam.co.kr



곡성, 1회용품 줄이기 '앞장' 다회용컵 의무화·분리 배출

곡성군이 환경 보호와 지속가능한 미래 실현을 위해 '1회용품 없는 청사 만들기' 정책을 추진한다. 이번 정책은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일상 속 친환경 생활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청사 내 작은 실천이 탄소 배출 저감과 자원 절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 직원이 다 같이 참여하는 실천 중심의 청사 운영 문화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주요 추진 내용은 개인용 컵과 텀블러, 다회용컵 사용 의무화, 회의·행사 시 다회용기 사용, 청사 내 플라스틱컵 등 1회용 컵 반입 자제·금지, 민원인용 다회용 컵 비치·활용 등이다. 특히 군은 정책이 일회성 캠페인에 그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도 함께 강화한다. 매월 1회 이상 부서별 1회용품 사용 여부와 재활용품 분리배출 실태를 점검하고, 우수 실천 사례는 전 부서에 공유할 계획이다. 곡성=김유빈 기자 hnnews1@gwangnam.co.kr

고흥, 인재 양성 교육 투자 본격화

1인당 최대 200만원...지역 환원 선순환 구조 구축

고흥군은 지역 대학생의 안정적인 학업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경제적 부담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출신 대학생에게 미래인재로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고흥군 초·중·고등학교 중 2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2년제 이상 대학생으로, 국가장학금, 학교장학금, 부모의 직장장학금 등을 제외한 본인 실제 부담 등록금에 대해 1인당 최대 200만원에서 지원한다. 이는 등록금 중복 지원을 최소화하고 실제 부담 금액을 고려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지역 인재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다시 지역으로 환원되는 인재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gwangnam.co.kr

지원 신청은 다음달 12일까지 주소지 소재 읍·면 사무소를 통해 접수하며, 세부 지원 기준, 지급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고흥군 대표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이번 등록금 지원사업은 고흥에서 처음 시행하는 만큼 지역 학생과 학부모의 체감도가 높은 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교육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누구나 공정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향후 등록금 지원사업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 지원 규모와 대상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추가 지원과 함께 지역 전략산업을 이끌어갈 인재 양성 프로그램과 연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gwangnam.co.kr



해발 667m 보성 일립산 정상 일대가 연분홍 철쭉으로 물들며 장관을 이루고 있다. 사진제공=보성군청

보성 일립산 '연분홍 물결'... 철쭉문화행사 성황

차나무 화분 만들기 등 다채...5만명 발걸음

보성 웅치면 일립산 일원에서 개최된 '제22회 일립산 철쭉문화행사'가 전국 각지에서 방문한 관광객 5만여명의 발길 속에 마무리됐다. 이번 행사는 일립산 철쭉문화행사 추진위원회 주관·주최로 열렸으며, 전국 최대 규모 철쭉 근각지인 일립산의 아름다운 경관을 널리 알리고, 보성의 산림 문화와 농·특산물을 함께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해발 667m 일립산 정상 일대는 행사 기간 절정을 이룬 연분홍 철쭉으로 장관

을 이루며 전국 등산객과 관광객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행사장인 웅추계곡 주차장 일원에서는 차나무 화분 만들기, 편백나무 절라기, 목공 체험(곤충 배지·가방 만들기) 등 보성의 특색을 살린 산림 체험이 운영돼 가족 단위 관광객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얻었다. 또 산림 문화 사진 전시회, 포토존 및 사진 인화 서비스, 느린 우체국, 소원 빌기, 룰렛 경품 행사 등 다채로운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추억

을 선사했다. 행사장 내 농·특산물 판매 부스에는 보성의 우수 농산물과 특산품을 구매하려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으며, 푸드트럭 운영을 통해 지역 먹거리 소비도 활기를 띠었다. 손익의 일립산 철쭉문화행사 추진위원회는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 주신 덕분에 올해 행사도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일립산 철쭉문화행사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봄꽃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알찬 프로그램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보성=임태형 기자 limth66@gwangnam.co.kr

여수, 지역관광발전지수 '전국 최상위'

관광인프라·관광산업 경쟁력 인정...전남 지자체 중 유일

여수시가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5 지역관광발전지수' 평가에서 전국 최상위등급인 1등급을 획득하며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로서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여수시는 이번 평가에서 관광자원, 관광인프라, 관광객, 관광산업, 관광정책환경 등 총 5개 분야에서 1등급을 받았으며, 종합지수 104.24점을 획득해 종합 1등급을 달성했다. 이는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평균 점수인 86.07점을 크게 웃도는 수치로, 지난 2023년(100.75점) 대비 지수가 상승하며 지속적인 관광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문체부의 평가 결과 광역지자체 가운데서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유일하게 1등급

을 받았으며, 151개 기초지자체 중에는 여수시를 비롯해 강릉시, 경주시, 용인시, 전주시 등 11개 지자체가 1등급에 선정됐다. 특히 여수시는 2019년부터 8년 연속 1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전남 유일의 지자체로, 체계적인 관광 인프라 구축과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역관광발전지수 1등급 달성은 여수시가 관광도시를 넘어 체계적인 인프라와 산업 경쟁력을 두루 갖춘 대한민국을 대표 관광도시임을 인정 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다시 찾고 싶은 글로벌 해양관광 휴양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여수시 전경

"코스트코 입점 대비 소상공인 상생모델 찾자"

순천시, 업종 영향 분석·상생협력 과제 발굴 원도심·전통시장·관광지 연계 등 대책 마련

순천시는 코스트코 순천점 입점과 관련해 지역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의 지속 가능한 상생 기반 마련에 들어갔다. 시는 코스트코 입점이 단순한 대규모 유통시설 유입에 그치지 않도록 지역상권 영향 분석, 소상공인 의견수렴, 상생협력 과제 발굴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전통시장, 슈퍼마켓, 식자재마트, 골목상권 등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에 대한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

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11월에는 전남동부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진과 면담을 갖고 코스트코 입점 진행상황을 공유했으며, 향후 상생방안 논의에 협동조합이 적극 참여하겠다는 공감대도 형성했다. 이를 위해 시는 '대규모점포 입점에 따른 상생협력 방안 연구용역' 계약을 완료하고 시행 중이다. 해당 용역은 코스트코 순천점 입점에 따른 지역상권 영향 분석과 소상공인·전통시장·중소유통업체와의 상생협력 방안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주요 과업에는 순천시 전역 상권 현황 조사, 업종별·권역별 영향 분석, 영향 예상 업종 분석, 지역주민, 청년 우선채용 가능성 검토, 지역업체 참여 가능성 분야 분석, 코스트코 방문객의 원도심·전통시장·관광지 연계 방안 등이 포함된다. 또한 시는 7월 중 '순천시 지역상생협력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지역상생협력체는 행정, 소상공인, 중소기업, 전통시장, 상인회, 소비자단체, 전문가, 시의회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로 구성되며, 코스트코 입점에 따른 지역상권 영향과 대응방안, 소상공인·전통시장·중소유통업체 상생협력 과제 등을 논의하게 된다. 협의체 구성 이후에는 연구용역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협의체 의견을 용역에 반영해 중점 검토 업종, 조사대상, 상생협력사업 발굴 방향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행정 주도의 일방적 대책이 아닌,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중소기업의 현장 의견이 반영된 '순천형 상생모델'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단순한 현금성 지원보다 실제 협의의 가능성과 실행력을 갖춘 상생과제 발굴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지역인재 채용, 지역업체 용역 참여, 지역 금융기관 예치, 지역제품 판로 확대, 지역 중소기업 협력사업 등 코스트코와 협의의 가능한 과제를 구체화하고, 용역 결과를 향후 코스트코 지역협력계획 협의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순천=박철식 기자 2556pk@gwangnam.co.kr